

■ 무등산 약수터 2·4분기 수질검사결과

약수터	소재지	인원(명)	부처형향목 및 검사결과
평두메	북구 청옥동 송인사	200	합격
괴막재	동구 윤림동	100	합격
늦재	-	150	합격
덕산샘	바림재	100	합격
동화사	구 절터	100	-
너덜길	토기들	1500	-
종머리재	월기장	800	합격
산장광장	북구 금곡동 산장광장	250	합격
청룡샘터	동구 윤림동	200	합격
구중심사	동구 윤림동	400	합격

※ 불합격 항목: 총중금속, 산화질소, 철, 칼슘, 총칼슘

2·4분기 수질검사서에서 음용 부적격 판정을 받은 무등산 산장광장 약수터. 무등산내13곳의 약수터는 매년 여름 장마로 인한 지표수 유입과 동물 배설물로 총대장균 등 각종 세균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위직림기자 jrw@kwangju.co.kr

### 여름철 약수터 물 마시지 마세요

무등산 13곳중 너덜길 등 10곳 대장균 검출  
돌샘·봉황대·총장사 3곳은 음용 적합판정

대부분의 무등산 약수터가 매년 여름 주기적으로 대장균·여시니아균 등 인체에 해로운 세균에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마철 잦은 비로 인해 지표수가 유입되는데 ▲동물들의 배설물도 섞이기 때문으로, 등산객들이 식수를 지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4일 “무등산 자락 약수터 13곳에 대해 2·4분기 수질검사 결과 77%인 10곳에서 총대장균과 분(糞) 성분, 여시니아균 등이 검출돼 음용이 금지했다”고 밝혔다.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평두메·괴막재·늦재·덕산샘·동화사·옛 증심사 약수터·너

덜길·종머리재·산장광장·청룡샘터 등이다. 적합 판정 약수는 돌샘·봉황대·총장사 등 3곳에 불과했다. 이들 약수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1일 3천700여명으로, 이용객(1천500여명)이 가장 많은 너덜길 약수터에서는 총대장균이 검출됐고, 종머리재(800명 이용)에서도 총대장균과 여시니아균이 발견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7·8·9월 수질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무등산 자락 약수터가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7월에는 13곳 모두에서 총대장균이 발견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8월 들어서도 산장광장 약수 1곳을 제외한 12곳이 불합격했다. 9월에는 늦재·괴막재·산장광장 3곳을 제외한 12곳의 약수가 음용

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고, 10~12월 검사에서도 평두메·늦재·동화사·덕산샘·돌샘·봉황대·구중심사 관리소·산장광장 등 8곳을 제외한 괴막재·너덜길·종머리재·청룡샘터·총장사 등 5곳이 음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이들 부적합 약수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음용을 금지 하는 경고판을 부착했다. 또 여름철에는 검사횟수를 2차례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먹는물 관리법에는 대장균 등이 한 마리라도 검출될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광주시는 장마철 잦은 비로 인한 지표수와 동물 배설물 등이 약수로 유입된다고 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되도록 식수를 지참하고 등산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서구 어머니들 한푼 두푼 모아 어린이 전용 도서관 만들었다

‘엄마들이 만들어 놓은 도서관에서 맘껏 읽고 배우렴...’  
어머니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기업 등 시민들이 힘을 보태 마련한 ‘꾸러기 도서관’이 오는 29일 광주시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내 서구 공공도서관에서 문을 연다.

‘꾸러기 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도한 어머니들은 광주YMCA 아기사포초단 어머니 모임 ‘듬뿍’, 서구문화센터 동화림기 모임 ‘동화나누미’, 독서토론 모임 ‘책향’, 자원봉사 어머니 모임 등 4개 모임 회원 200여명, 서구 금호·풍암지구에 사는 이들은 지난 5월5일 어린이날 행사를 계기로 어린이 도서관 만들기에 대해 논의하다 6월 들어 녹색장터를 열어 50여만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금호·풍암지구 등 아파트 밀집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그동안을 위한 독서공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들의 열정에 부응해 기아자동차(500만원)·금호산업(400만원)·광주신세계백화점(400만원) 등이 힘을 보탰다. 도서관에 비치할 책도 200여권이 모였다.  
센터측도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화센터내 전자도서관(34평)을 어린이 도서관으로 바꿨다. 어린이용 책상·의자, 원형 소파, 어린이 벽화 등 시설을 배치하고, 문화센터내에 있던 어린이 책 9천여 권 가운데 3천여 권은 어린이 도서관 책장으로 옮길 계획이다.  
전자도서관에 있던 컴퓨터 6대는 복도에 놓아, 활용도를 높이기도 했다.  
‘책향’ 강순덕(여·50) 회장은 “문화센터 내 서구공공도서관의 하루 이용인원 600여 명 중 30%인 180여 명이 어린이들인데도, 이를 위한 독서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 어머니들이



오는 29일 서구문화센터 내에 문을 열 어린이 도서관 개실 공사가 한창이다.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팔을 걷었다”고 말했다.  
서구문화센터 이운기(34) 간사는 “앞으로 시 낭송, 독후감 발표 등 다양한 독서장터 운동을 벌여 모범적인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 목표”이라고 말했다.  
회원 2천여명의 서구문화센터는 광주YMCA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 강좌·공연·어린이·청소년 교실 등이 열려 지역 문화 창달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광주, 2013 東아시아대회 유치 돌입

유치위원 11명 위촉 본격 활동

광주시가 동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의인 ‘2013 동아시아 경기대회(6회)’ 유치를 본격 나섰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25일 동아시아 경기대회 유치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유치 담당성 홍보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  
유치위는 김창중 자유전기대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응식 조선대 체육실장 등 각계 대표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2일 유치를 향해서 대한체육회(KOC)에 제출했다.  
동아시아 경기대회는 한국과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등 동아시아 10개국 이 회원국인 대회로 육상과 수영, 축구 등 16개 종목에서 3천여명이 참가,

기량을 겨룬다.  
4년 단위로 열리는 이 대회는 지난 93년 중국 상하이에서 첫 대회가 열린 뒤 부산(2회)과 일본 오사카(3회), 중국 마카오(4회) 등에 이어 2009년(5회) 대회는 홍콩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6회 대회는 내년 6월 동아시아 대회조직위원회(EAGA) 총회에서 확정되며 KOC는 연말까지 국내 후보 도시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지난달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삼회와 6·15 남북공동선언의 성공적 개최의 여세를 몰아 동아시아 경기대회 유치를 나섰다.  
시는 이번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시 위상제고와 국제교류 확대, 취약한 체육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학교·종합병원 인근 ‘시끌 시끌’

소음 기준치 웃돌아

광주의 학교와 종합병원이 밀집한 지역에서 소음이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 발표 결과에 따르면 학교가 밀집한 북구 윤암동 지역은 밤 시간대(22시~06)에 49dB을 기록, 기준치보다 9dB 높았다.  
밤 시간대(06~22시)도 54dB을 유지해 역시 기준치(50dB)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종합병원이 밀집한 동구 서석동 일대의 소음도 밤 시간대는 기준 보다 7dB, 밤 시간대는 10dB 높은 57dB과 50dB을 기록했다.  
또 소음환경 기준 초과율이 높은 곳은 모두 밤 시간대 도로변 지역으로 전체 9곳 중 7곳(78%)이 기준을 초과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도로변 지역이 일반지역에 비해 약 9~14dB, 낮 시간대가 밤 시간대에 비해 1~8dB 가량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밤 시간대 도로변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소음 줄이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um@kwangju.co.kr

### 매일동 차부품단지 일부 용도변경 될 듯

부품조립, 서구청에 승소

논란이 됐던 광주시 서구 매일동 자동차 부품단지 일부가 용도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광주시 서구청에 따르면 광주 지방법원 행정부는 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이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

한 자동차 부품단지 용도변경 반려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 자동차 관련 부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조성된 유등단지기계획을 들어 용도변경을 반려했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증진시켜 단지의 기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용도변경

을 반려하는 것이 오히려 단지의 활성화를 저해해 기계획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조합은 지난해 4월 ‘판매 및 영업시설’로 지정된 각 동 1층을 ‘부대 및 편의시설’로 용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상인들은 일부 구제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용도변경이 소폭으로 이뤄질 경우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지하철 환기구 연기 “화재 아님니다”

오인 신고 해프닝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는 최근 지하철 환기구에서 나타나는 ‘백연(白煙)현상’을 화재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다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백연현상이란 고온·다습한 공기가 외부의 상대적으로 찬 공기와 부딪히

면서 과포화된 수증기가 마치 연기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실제 지난 16일 한 시민이 지하철역의 백연현상을 연기로 오인,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백연현상은 추운 겨울철 한 입김이 나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

### 생활안내

구분	내선번호	외선번호
교통안내	360-8114	360-8114
행도안내	1544-7788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1588-2505
가정법률상담소	671-4050	671-4050
24시간 청소년상담	527-0011	527-0011
국세청	1388	1388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1588-0060
법무민원상담	1588-9090	1588-9090
소피자 상담	232-6133	232-6133
광주 YMCA	524-5400	524-5400
주무교실	232-0643~4	232-0643~4
녹색소비자연대연구소	369-9881	369-9881
학교폭력	112	112
국민안심	226-0112	226-0112
국민신문	233-2828	233-2828
사이버대리	02118	02118
여성긴급국번이	1366	1366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363-0155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

**사무용 가구의 모든것**  
관객만방으로 www.hanboGAGU.com  
100% 직접제작/제작/판매/수리/서비스

**사무용의지 전문생산업체**  
TORCH  
사무용의지 전문생산업체  
사무용의지 전문생산업체

**전기만 사용하는 태양초 고추건조기**  
20년 경험과 뛰어난 기술로 탄생한 최고의 유일건조기  
유일건조기만의 특징  
전국매리점모집 : 실시간 인기 판매